

# 나눔터

· 퍼널 / 일선구력구집플년 삼월월일 · 퍼널 /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 퍼널이 / 최영애 · 민튼이 / 이윤상 · 편집 / 태성규 커뮤니케이션

##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우체국 사서함 45호 우편번호 137-600

일반상담 02-529-4271~2 위기상담 02-573-1888

열린터 02-529-4271~2

사무전화 02-576-7128, 576-5513~4 팩스 02-576-7127

부설 성폭력문제문제연구소 02-576-5450

## 올해에는 이러한 일을 합니다

### 한국성폭력상담소

### 부설 성폭력연구소

<u>상담원 모꼬지</u>	1월	<u>운영위원회 · 겨울캠프 평가 및 보고서 작성</u>
<u>정기총회 · 자문위원모임 · 나눔터 25호 발간</u>	2월	<u>성폭력 가해자 교육안 작성</u>
<u>심리상담원위 모임</u>	3월	<u>장기 성교육 프로그램 시작</u>
<u>지킴이 교육 · 개소 7주년 기념 상담원 워크샵</u>	4월	
<u>자원활동가 운영위원회 · 나눔터 26호 발간</u>	5월	
<u>상담소 전체 야유회</u>	6월	
<u>청소년 성폭력 예방 비디오 제작</u>	7월	<u>개소 1주년 기념 성교육 교사 워크샵</u>
<u>나눔터 27호 발간</u>	8월	
<u>심리상담지원위 모임</u>	9월	<u>추계 학술대회</u>
<u>자원활동가 운영위원회 ·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u>	10월	
<u>세계 성폭력추방주간 · 나눔터 28호 발간</u>	11월	<u>열린터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u>
<u>한해보내기</u>	12월	<u>학술지 발간</u>



## 폭과 깊이가 어우러지는 98년을 기대하며

최영애 본 상담소 소장

다시 뛰자, 새로 뛰자. 현재 우리사회 곳곳에서 참담한 국가경제 위기상황을 헤쳐 나아가려는 절박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한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총체적 난국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해 98년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개인과 사회 전반에 걸쳐 일어날 변화의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고 이러한 상황은 불안을 가중시키고 구체적 대안과 전망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 대 여성폭력을 가능케 하는 사회 제반구조의 악화로 관련 여성·시민단체의 활동이 더욱 요청되어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민간 시민 단체들의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어려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경제 우선 논리 위에 여성의 인권과 기본권이 부차적 문제로 간주되는 상황이 합리화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벌써부터 이러한 징후는 정리 해고 일 순위로 장기 근속 여성, 기혼 여성이 대두되는 현실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자조적인 말로 IMF를 "I am female" 로 대비시키는 것도 무리가 아닌 듯 합니다.

그러나 척박한 땅을 기름진 옥토로 만드는 여성들의 생명력과 지혜를 바탕으로 여성의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사회 곳곳에 부풀어 있던 거품을 건어내는 총체적 작업으로

경제 뿐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던 삶의 방식과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계기로 전환시키는 여성·시민운동이 활성화된다면 차라리 오늘의 상황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은 기존의 여성·시민 단체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상담소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각오와 결의 위에서 98년을 채워가려고 합니다.

이제 상담소는 올해로 문을 연지 8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돌아보면 긴 세월인 듯 하지만, 시간의 흐름을 실감할 겨를도 없이 성폭력 전문상담기관으로서의 폭과 깊이를 아우르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조그만 사무실, 서너 명의 상근자, 30여명의 상담원, 5명의 나눔이, 열명 안팎의 의료인, 변호사들로 출발했던 상담소가 이제 십여명의 상근자, 150여명에 이르는 상담원 자원활동가, 의료·법·심리·연구분야 등의 100여명에 이르는 전문위원들, 300여명에 이르는 회원·후원회원들이 함께 하는 장으로 넓혀지고, 위기센터·열린터 개설·24시간 상담 체제 확립 등의 기구확대로 활동 영역의 폭이 크게 넓혀졌습니다. 지난해는 연구소를 개설하여 심도 깊은 성폭력 관련 조사 연구 작업의 틀을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상담소는 올 한해 동안 상담소가 그동안 꿈꾸어 온 상담소, 연구소, 교육원, 출판사가 어우러진 하나의 종합센터로 가기 위한 토대를 튼튼히 쌓는 일에 주력할 생각입니다. 7년여 기간 동안 축적된 우리의 경험과 자료를 토대로 상담의 질적 향상과 내담자 지원의 폭과 깊이를 심화시키는 작업, 청소년 성교육 및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성폭력 관련 조사 연구 작업에 박차를 가하려고 합니다.

우선 상담영역에서는 심도 깊은 상담을 위해 상담원 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하려고 합니다. 전국 성폭력 관련 단체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상담원들의 경험과 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성폭력 상담에 유용한 상담기법을 함께 개발하는 워크숍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리는 전국 성폭력상담소들간의 유대감과 상담의 질적 향상을 함께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새로이 개발하여 피해자 지원의 폭을 넓히려려고 합니다. 열림터 근친강간 피해자 집단상담, 일반 성폭력 피해자 집단상담, 어린이 성폭력 피해자 부모 집단상담을 우리사회 문화와 현재적 조건에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연구·개발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피해 당사자들 혹은 피해자 가족관련자들을 위한 집단상담의 유용성과 필요성은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우리의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시하지 못해 왔습니다.

기존의 일반상담, 24시간 운영되는 위기센터, 피해자 피난처인 열림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진·법조인·경찰 전문집단과의 연계를 확대, 체계화 하는 방안으로 이들과의 집단별 간담회와 워크숍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PC 통신상담 내에 피해자 토론방을 설치하는 등 그 내용성을 더욱 심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주간 상담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실시해오던 전문가 상담 슈퍼비전을 야간상담원에게까지 확대, 강화하여 성폭력 전문상담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가다듬고자 합니다. 슈퍼비전을 통해 자신의 상담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장단점을 발견, 수정 보완하는 과정은 상담의 질적 향상에는 필수적이라는 생각입니다.

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교육에서는 일차적으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청소년 성교육 전문가와 중등학교 성교육 교사들 워크숍을 열어 개별적으로 진행해오던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론을 공유하고 우리사회에 적합한 성교육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개발된 성교육을 특정 중학교를 선택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학생 남녀 혼합형 성교육, 소년소녀 가장 성교육 캠프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한 경험을 바탕으로 특정 청소년 집단에 대한 성교육 캠프를 올해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령과 유형에 따라 개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중학생

을 대상으로 청소년 성폭력 예방을 근간으로 하는 성교육 비디오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본 상담소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를 중심으로 성폭력 관련 조사 연구 작업을 심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동안의 경험과 축적된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각 유형별 예방 및 교육 자료집을 발간하여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여성들의 보험·각종 물품·자료 판매 등의 영업직 참여가 두드러질 것을 예상할 때, 영업직 성폭력 예방 지침서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폭력 관련 상담소나 경찰서, 의료진들에 유용하게 사용될 의료, 법률 지침서와 더불어 성폭력 개론서와 각 유형별 구체적 예방 지침서를 묶어 시리즈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성교육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토대로 한 성교육 자료집, 피해자 유형별 집단 상담 프로그램 개발 등 프로그램 개발에 역점을 두는 한편, 성폭력 실태조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가해자 연구도 지속적인 과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내에서의 학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학생들과의 연계 활동을 펼칠 생각입니다.

이렇듯 상담소는 올 한해의 목표를 각 영역에서 축적된 자료의 적극적 실용화에 두려고 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일차적으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폭과 깊이를 더하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적극적인 성폭력 예방활동이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올 한해 상담소는 비·바람이 예상되는 거친 환경에서도 우리들이 닦아 온 터를 더 갈고 닦아 옥토로 만들어 풍성하면서도 실한 열매를 맺어 보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매가 어떠한 토양과 환경에서 가장 잘 자랄 수 있는지를 모두에게 알려내어 황폐한 땅을 옥토로 바꾸어 가는 일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년여 기간 동안 이 터를 닦아 뜨거운 피약별 아래 발 갈고 씨 뿌리는 일을 함께 한 많은 분들, 상담소 발기인, 나눔이, 지킴이, 상담원, 회원, 후원회원, 이사, 연구소 식구들, 각 분야 자문위원들 그리고 상근자 여러분들께 지면을 빌어 다시 한 번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려운 성폭력 극복 과정을 견디며 힘들지만 자신을 찾아가는 많은 분들께 고마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힘 내십시오! 올해도 우리의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

# 1997년도 상담현황분석

조중신, 김병숙, 정진욱 본 상담소 상담부

본 상담소에서는 1997년 한해동안 <내담자 지원의 강화 및 체계화>를 목표로 <상담의 질적향상>과 <상담원 재교육>에 주력했다. 1997년도 상담현황 및 특기할 만한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97년도에는 1년간 2295건 3424회의 상담을 하였다(표1참조). 이는 96년도 2138건 3459회와 비슷한 수치이다(상담건수 7.3% 증가). 96년 하반기부터 실시된 야간상담으로 24시간상담이 정착하였고(야간상담 1043회, 30.5%)(표2참조), 97년 6월부터 PC상담이 개설되어 다양하고 전문적인 상담이 계속되고 있다.

〈표2〉97년도 야간상담(오후 5시 이후)

총상담회수	야간상담	위기상담(사건발생 후 48시간 이내)
3424회	1043회(30.5%)	519회(15.2%)

2)성폭력피해상담은 1647건으로 전체의 71.8%이며, 이중 강간이 883건(53.6%), 강간미수 65건(3.9%), 성추행 699건(42.5%)이다. 기타상담(648회)에도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상담 등 성폭력과의 상관성이 높은 상담이 많이 나타난다. 어린이 피해가 33.7%(96년도)에서 22.5%로 낮아진 반면, 성인 피해가 96년도 42.1%에서 50.3%로 증가하였고, 사회전반에 걸쳐 청소년의 성문화에 대한 문제제기와 전문적인 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활발했기 때문인지 기타상담 중 청소년의 성상담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3)성폭력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아는 사람인 경우는 1161건(70.4%)인데, 이 중 특수강간, 강간미수, 언어추행, 남성피해를 제외한 988건 중 관계 분포는 <표3>과 같다. 기타149건에는 의사, 경찰, 군인, 공무원, 학교나 학원 관련자, 아파트 관리인, 통학버스기사, PC통신 동호인, 수영장 회원 등 다양한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특수강간과 통신매체음란의 경우는 모르는 사람인 경우가 훨씬 많았고, 강간미수와 직접언어추행은 아는 사람이 훨씬 많았다. 언어 추행 중

〈표3〉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아는 사람인 경우의 분류  
(특수강간, 강간미수, 남성피해, 언어추행 제외)

아는사람	친족	동네 사람	직장내	데이트 상대	교사, 강사	성직자	선후배, 동급생	기타
988건 (100%)	203건 (20.5%)	188건 (19.0%)	216건 (21.9%)	112건 (11.3%)	54건 (5.5%)	6건 (0.6%)	60건 (6.1%)	149건 (15.1%)

직접언어추행은 직장내에서 성차별적이거나 여성비하적인 언동, 동네에서 싸움이 일어났을 때 성기를 빚댄 욕설 등이었고, 통신매체 이용음란에는 학교여선생님 집에 상습적으로 음란전화를 한 중학생, 설문조사를 빙자한 음란전화 등이 나타났다.

4)남성피해도 60건 상담되었는데 성인남성 16건은 남성에 의해 피해받은 사례이고, 청소년(33건)과 어린이(11건)는 상급생이나 연장자 등에 의한 피해이며, 이중에는 성인여성에 의한 추행과 여자 청소년들에 의한 집단추행도 있다.

〈표4〉97년도상담 지원방법, 후속처리 통계

지원 방법	총 상담 회수	상담 건수	재상담	면접 상담	서신 PC 상담	토요 법률 상담	고소건 (상담후 고소)	경찰 연계	법정 지원	진정서, 상담일 지 송부	병원 연계	자료 지원
총계	3424회	2235건	1129회	222회	51회	113회	24건 (32건)	53건	13회	17회	123건	93회

5)2회 이상 진행된 지속상담은 383건, 1129회로 이 중에는 5회 이상 55건, 10회 이상 17건, 25회이상 3건이 진행되고 있다. 이중 면접은 232회 이루어졌다. 법적 진행사건은 주로 토요일법률상담에서 변호사들이 상담하고 있으며, 심리상담전문가나 책임상담원들이 후유증상담을 담당하고 있다.

〈표5〉내담자 유형

전체상담	피해자 본인	보호자	기타(친척, 동료, 이웃, 교사, 의사 등)	가해자측
3424회	1867회 (54.5%)	754회 (22.1%)	740회 (21.6%)	63회 (1.8%)

6)법적문의사례가 516건(31.3%), 고소건수는 294건(17.9%)이고, 이 중 고소 후 상담한 사례가 262건, 상담 후 고소한 사건이 32건이다. 토요일법률상담 변호사와의 면담사례가 77건, 경찰연계를 받은 사건이 53건, 진정서나 일지송부가 17건, 법정지원팀에서 법정동행과 참관을 한 사건은 13건이었다(표4 참조). 즉각적인 경찰연계로 강도강간



〈표1〉

유형	피해자/가해자 관 계	피 해 자					소계	고소			
		성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	미상					
강 간	일 반	친 족	아버지	3	30	31	1	1	66	7	
			그외	3	10	9	2	0	24	1	
	직 장	인척		10	11	12	4	1	38	4	
			상사/동료	95	13	0	0	0	108	11	
	강 간 람	사 람	기타		6	0	0	0	0	6	2
				동네사람	15	14	24	13	0	66	21
				데이트상대	76	30	0	0	0	106	9
				성직자	3	1	0	0	0	4	0
				동급생/선후배	19	17	0	2	0	38	1
				교사/강사	7	12	1	1	0	21	2
				기타	64	23	8	0	0	95	20
				모르는 사람	84	58	25	3	0	170	34
				미상	28	16	5	1	8	58	11
				특수 (강도) 강간	사 람	기타	아는 사람	4	5	0	0
모르는 사람	36	28	3				1	0	68	20	
강간미수	사 람	기타	미상	3	2	0	0	1	6	1	
			아는 사람	47	3	3	1	1	55	12	
성 폭 력	일 반	친 족	아버지	2	10	15	7	0	34	1	
			그외	6	3	4	1	0	14	0	
	직 장	인척		5	3	9	10	0	27	0	
			상사/동료	94	4	0	0	0	98	9	
	성 폭 력 람	사 람	기타		4	0	0	0	0	4	0
				동네사람	17	3	51	51	0	122	31
				데이트상대	5	1	0	0	0	6	1
				성직자	1	1	0	0	0	2	0
				동급생/선후배	8	4	3	7	0	22	0
				교사/강사	9	6	12	6	0	33	4
				기타	30	10	7	7	0	54	9
				모르는 사람	47	16	33	21	5	127	33
				미상	6	1	1	3	0	11	0
				직접 언어추행	사 람	기타	아는 사람	17	1	0	0
모르는 사람	7	0	0				0	0	7	2	
미상	0	0	0				0	0	0	0	
남성피해	사 람	기타	아는 사람	13	22	6	3	0	44	32	
			모르는 사람	3	6	2	0	0	11	0	
			미상	0	5	0	0	0	5	0	
통신매체 이용음란	사 람	기타	아는 사람	8	2	2	0	0	12	0	
			모르는 사람	37	7	1	0	2	47	0	
			미상	1	0	0	0	0	1	0	
계(%)			829	360	273	146	19	1647	233		
			(50.3%)	(23.0%)	(16.6%)	(8.9%)	(1.2%)	(100%)	(15.4%)		
기타	성관련 상담(순결/체면/임신/낙태/자위 등)	200	146	9	3	3	361	2			
	기타(가정폭력/학교폭력/협박/장난전화 등)	170	97	8	3	9	287	7			
	계	370	243	17	6	12	648	9			
1차상담 총계		1198	624	230	152	31	2295	202			
재상담	강간	327	224	97	8	0	656	10			
	강간미수	34	4	0	1	0	39	1			
	성추행(남성피해 제외)	138	38	93	110	1	380	11			
	남성피해	3	6	6	0	0	15	2			
	기타	25	13	1	0	0	39	0			
계		527	285	197	119	1	1129	32			
총계		1725	809	487	271	32	3424	294			

범을 검거한 사례, 제자 성추행사건 지원으로 가해자가 교수직을 퇴직하게 된 사례, 무고죄로 몰린 영업직 여성을 지원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 가해자인 친부가 12년형을 선고받은 사례 등은 본 상담소의 법적 지원이 성과를 거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외에도 많은 사건들이 고소장작성, 증거확보, 피해자 법정진술요령, 무고죄에 대한 대처, 성폭행한 친부 친권양도소송, 이혼소송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다.

7)성추행상담은 699건(42.5%)으로, 증거가 확보되기 어려워 대응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담이 많았다. 이 중 언어추행은 전화·음성 서서함·PC통신·인터넷 등 신중 매체에 의한 성폭력이 성행하고 있는데, 처벌과 발신자 추적이 가능하여지긴 했으나, 가해자 검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또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직장내 성희롱이 많이 상담되고 있는데 법적해결은 아직도 요원한 상태다. 이 외에도 상대가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 따라다니는 성적 괴롭힘(일명 스토킹stalking)은 피해자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위협을 느끼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처벌규정이나 인식이 전무한 상태이다.

8)피해자 본인이 상담한 경우가 1867회(54.5%), 제3자가 대리상담한 경우가 1557회(45.5%)이었는데, 이중에는 가해자측 상담도 63회(1.8%) 있었다. 가족이나 주위사람들이 받는 충격이 심각하고, 또 그들이 피해자를 올바르게 도울 수 있다면 극복에 좋은 지지세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상별 대리상담의 기법이 보다 심도있게 연구될 필요가 있다.

가해자측 상담으로는 학내성폭력사건의 가해자가 학생회의 요청으로 본 상담소에서 교육 및 상담을 받게 된 경우와 가해자 가족들이 겪는 충격이나 부끄러움, 청소년 가해자의 선도에 대한 문의 등이었다. ☺

## 〈PC 상담〉

익명성을 기대하는 성폭력피해자들의 심리 때문에 상담건수가 상당수에 이를 것이라는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97년 6월 IP개설이 후 97년 12월 31일 현재까지 접수된 PC상담은 총 13건, 16회이다. 기타로 분류된 상담은 “정말 비밀이 보장되느냐”는 확답을 요하는 문의편지였다. 상담건수의 저조와는 달리 성폭력 관련정보나 대처 사례, 올바른 성지식 등의 정보는 조회수가 5,000여회가 넘는 게시물이 있는 등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PC상담은 통신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쉽게 PC상담을 이용

할 수 있도록 보다 이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한 방식으로 메뉴를 개편하는 한편, 브로셔 제작배포, 통신내 이벤트 활성화 등을 통해 이에 대한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다 정보와는 구별되는 성폭력 전문 정보로서의 입지를 굳혀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

### 〈PC상담〉

분류	강간치상	강간	성추행	남성피해	일반 성상담	기타	재상담(강간)	총계
횟수	1	5	2	1	2	2	3	16

## 〈열린터〉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단기 보호시설인 본 상담소의 열린터에는 대부분 가정과 사회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성폭력 피해에 노출되어 심각한 심리적·육체적 피해를 입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일시적으로 거주하면서 함께 피해를 극복하고 치유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97년 열린터 내담자는 총 33명이며, 이들 중 97년 입소자는 27명, 퇴소자는 30명이다(성폭력 피해자 28명, 피해자 가족 5명).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강간이 25건, 성추행이 3건이며 이 중 친족에 의한 성폭력이 23건(강간 20건, 성추행 3건)이고 나머지 5건은 동네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에 의한 강간이다. 가해자가 친부인 경우가 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부 1건, 고모부·형부·친오빠 1건, 데이트 상대 3건, 동네 사람이 2건이었다. 가해자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피해자를 보호해 주어야 하는 아버지이거나 친·인척이라는 사실을 볼 때, 내담자들이 지속적인 피해에 대책없이 노출되어 있다가

열린터를 찾았음을 알 수 있다. 피해 연령은 대부분이 학력기 아동이거나 청소년들로서 7세 이하 1명, 8-13세 7명, 14-16세 14명, 17-19세 5명, 20세 1명이다.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피해 정도가 심각하여 정신과 및 심리 전문가에 의뢰한 상담이 7건, 경찰에 연계한 사례가 8건, 병원에 연계한 사례가 11건, 검찰이나 법정을 지원한 사례가 12건이다. 친족 피해자의 대부분이 유아기나 아동기 때부터 피해에 노출되어 왔기 때문에 심각한 심리적 고통과 이 고통이 육체적으로 발현되어 신경성 위염과 같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미성년자인 내담자들이 재판 참관, 증인 출석, 참고인 진술로 법원이나 검찰에 가게 되는 경우 본 상담소에서 동석하여 이들을 보호하였다. ☺

### 〈법률상담1〉

#### 어렸을 때의 피해사실에 대해 고소할 수 있나요?

친고적인 경우에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엔 부모가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합니다.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 때는 범인을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때를 말하며, 반드시 범인의 주소나 성명 등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수차례의 강간이 있었다면 마지막 강간 후 1년 이내에 고소하면 됩니다. 그러나 윤간, 근친강간 등 친고죄가 아닌 범죄에 대하여는 고소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풍소시효의 소멸 즉, 시간이 오래 지나 더 이상 그 범죄에 대하여 법적으로 추궁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흙 짝 크기 위한 두 번째 모색 겨울성교육캠프

이경미 본 상담소 부설 성품력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캠**프는 참가자는 물론 교사들에게도 성장의 기회가 된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캠프가 지난 여름에 이어 이번 겨울 또 한차례 실시되었다.

이번 캠프는 소년소녀가장을 위해 기안되었다. 이들은 다른 어떤 집단보다 성폭력의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으므로 성폭력 가해와 피해 예방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여러 조건상 이들을 만나서 캠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보였다. 고민 끝에 10년 넘게 민인지역 민의 교육운동을 해온 부스리기선교회(이하 선교회)와 공동으로 캠프를 주관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부스리기선교회가 실시해온 여러 활동 가운데 하나는, 각 지역에 공부방을 마련하여 편부모 또는 맞벌이 부모의 자녀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일정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의식을 배우고 건전한 성문화를 만들어가는 주제로 성장하기에는 이들이 처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교육적 환경이 무척 열악하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캠프를 실시하더라도 본래의 취지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이다. 일반 중학생 가운데서도 특히 주변 환경이 열악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필요성은 말할 나위가 없다.

캠프준비는 권수현, 김인정, 박수영, 이경미가 기획팀이 되어 여름 캠프의 프로그램을 기초로 캠프 일정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교사로는 이들 이외 류수진, 박현이, 신원우, 박진석, 전중현이 참여하여 교사로서의 자질과 의욕을 부지런히 키워갔다.

한편 선교회는 공단지역에 위치한 공부방 4곳을 선정하고 캠프참가를 희망하는 38명을 모집하였다. 성교육 가운데 한 주제만 다룬다 하더라도 1박 2일은 몹시 짧다는 것이 지난 여름 캠프를 통하여 캠프기획팀 모두가 인정하는 바였다.

이를 보완하는 한 방법으로 참가자들로 하여금 한 배를 탄 집단으로서의 연대감을 경험하고 간단하게나마 성에 대해 고민해보게 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기회로서 예비모임을 갖게 되었다. 예비모임에서는 슬라이드를 보면서 우리 주변에 검열의 대상조차 되지 않은 채 널부러진 성인용 만화와 영화포스터, 몸의 상품화를 전면으로 내세워 제작되고 유포되는 광고 등에 나타난 문제를 던졌다. 예비모임이나 캠프

때 매 각 공부방 담당교사가 줄곧 진행사항을 지켜보면서 이후 평가까지 같이 하였다.

13일 하안동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예비모임이 있었고, 23일과 24일 양일에 걸쳐 이천 [플라워랜드]에서 28명이 참가한 가운데 본격 캠프가 실시되었다. 어떤 캠프든 한 집단으로 만나서 자신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며 경청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인간관계 프로그램이 탄탄하게 진행될수록 성교육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번 캠프에서는 인간관계 프로그램 전문가인 김태황 선생님과 캠프하이어 시간에 전통놀이를 진행한 성낙운 선생님을 초빙하였으며 선생님들은 참가 학생들의 집단 응집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신나게 뛰고 놀면서 즐거움을 공유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학년별 성별로 6모듬을 만들었는데 이는 각기 다른 특성과 수준에 맞는 토론을 이끌어내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성교육 프로그램은 4번에 걸쳐 유기적인 통합을 전제로 실시되었다. 첫번째는 [성입문] 프로그램이다. '성이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는 성교육을 실시할 때 가장 먼저 던져지게 되는 질문이다.

일단 참가자가 성에 대하여 어떤 인식과 느낌을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하여야만 캠프 방향과 접근방식이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참가자들은 공통적으로 섹스, 성폭력, 포르노, 매춘 또는 588(5개 모듬), 콘돔과 피임(5개 모듬), 자위행위 또는 딸딸이(5개 모듬), 걸레(4개 모듬)를 적었고 여학생 모듬에서만 나온 것은 키스, 임신이다. 각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느낌을 형용사로 적도록 하였는데 남녀 학생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몇가지만 비교해보자면 아래 표와 같다.

	1모듬	2모듬	3모듬	4모듬	5모듬	6모듬
섹스	기본종은	죽이는	현란한, 황홀한	이쁜, 느끼한, 수치스러운, 끈 끈한, 징그러운	더러운, 처절한	오아름다워라! 더럽다, 짜증난다
성폭력	못마땅한				역울한, 무서운	무섭다, 화난다, 남자를 못입겠다
포르노	아한	주체할수 없는	그저그런, 더러운	재밌는, 지루한, 똑같은, 아한, 무서운, 끔찍한	재밌는, 황홀한	재밌다, 아하다, 섹시하다, 궁금하다
매춘, 588	기본나쁜	비밀스러운, 은밀한	가고픈, 멋진, 좋은	안타까운, 짜증 나는, 불쌍한, 자기학대		궁금하다, 더럽다, 화려하다, 술취한여자



1-3모둠은 남학생, 4-6모둠은 여학생이다.(여학생 모둠을 1모둠으로 시작하는 중요한 배려를 놓쳤다.) '포르노' 항목에서 여학생들이 재미있다고 반응한 것은 포르노의 정의가 남학생과 다르기 때문인데 이들은 포르노를 성인용 영화( '엄마는 외계인', '비트' 등)로 생각하고 있음이 토론 과정에서 밝혀졌다.

'섹스'에서는 남학생들과 달리 여학생들이 더럽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반응하고 있어서 성별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났다. 또 1학년인 1모둠과 4모둠의 반응과 3학년인 3모둠과 6모둠의 반응을 비교하면 학년별 차이를 알 수 있다.

성입문 프로그램에서는 이렇듯 성에 대한 느낌과 반응을 보면서 성기중심적이 아닌 보다 총체적인 시각으로 성을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두번째 시간[함께 사는 세상]은 고정화된 성역할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비디오( '신세대 보고 어른들은 몰라요' - 역세계 재수없는 날 97.11.25일 방영분)를 보고 난 후 가정에서나 학교, 사회 속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혹은 남성이기 때문에 경험할 수밖에 없는 부당한 성역할의 요구와 기대를 자신의 생활 속에서 찾아보도록 하였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 시기의 성폭력 피해나 피해는 고정화된 기존의 성역할과 연결된다는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였다.

세번째 시간[성폭력이란] 프로그램은 성폭력의 실태 특히 청소년 성폭력 피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사전 예방과 사후 대책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케도를 보면서 성폭력의 개념과 발생 실태를 설명한 후 교사들이 상황극을 한바탕 벌였다. 상황은 여중생이 모르는 사람에게 강간피해를 입은 후 자신 안에 있는 통념을 넘어서서 학교 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참가자들은 강간이라는 상황이 낯설고 멀게 느껴진 탓에 진지한 감정이입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상황극의 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이성교제 관계에서의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수칙을 만들면서 자신과 상대를 존중하는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고민하였다.

이튿날 실시한 [섹스박사] 프로그램은 성에 대한 건강한 태도와 인식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취지 아래, 참가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질문함에 받은 후 이를 하나씩 풀어나가는 식으로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이 질문한 것 몇가지를 보면 '왜 섹스를 할 때 그냥 하지 않고 정력을 크게 하는 것을 끼고 하는가?', 섹스를 하면 좋은 점은 무엇이고 나쁜 점은 무엇인가?, 남녀의 성관계는 어디서 어떻게 하는가?, 결혼 첫날밤 남자는 어떻게 알아서 섹스를 할까? 딸똥이는 얼마나 해야 몸에 해로운가? 낙태를 하면 뭐가 나쁜가? 남자들은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가? ...' 등이다.

질문 가운데 성교에 관한 것이 많았는데 성교할 때 남성이 주도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었다. 또한 여전히 성폭력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 의도적으로 성폭력 관련 질문지를 진행자들이 만들어 끼워넣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성기관에 대한 정확한 용어를 큰소리로 읽게 하여 쑥스러움을 해소하게 하고 성교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며 관계 속에서 성교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하여 이해하도록 하였다.

이번 캠프는 매 프로그램마다 시간에 쫓겨 축소진행함으로써 교사는 물론 참가자들도 무척 안타까와 했다. 그래서 성적 행동을 결정하는 과정에 필요한 기준과 성적 가치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후속 모임을 할 계획이다.

캠프를 두번 진행하면서 점점 더 확실하는 것은 성교육은 총체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만큼 총체적인 주제를 풀고루 다루어야 하므로 결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다. 장기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을 속히 마련하여 정말 내실있게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

# 세계성폭력추방주간 특집 토론회

정진욱 본 상담소 상담4부장

본 상담소에서는 97년 세계성폭력추방주간(11/25 - 12/10)을 맞이하여 11월 24일부터 12월 5일까지 유니텔과 공동으로 성폭력관련 사이버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크게 세 가지의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1)11/24(월) - 11/26(수) : 노출은 성폭력의 주범인가 (2)11/27(목) - 11/30(일) :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한가 (3)12/1 (월) - 12/5 (금) : (제2의 성폭력) : 제도적 문제점으로 구분되어 텔레이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델타포스(노동수, 유니텔 이용자)님을 비롯한 많은 이용자와 함께 대선 전 4당의 대선후보들, 국회의원·변호사·영화감독 등 사회각계의 인사들, 그리고 각 지역의 성폭력상담소 등(아래 참여패널 참조)이 참여하여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짚어보고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상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열띤 논쟁의 장이 되었다.

총 408건의 게시물이 등록되어 이용자들의 성폭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내었고, 김대중 후보의 글을 비롯한 몇몇 패널들의 글은 조회수가 1700여회를 넘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끌기도 했다.

또한 이름을 밝히지 않은 친족성폭력피해자의 글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폭력이 한 개인의 인생을 얼마나 황폐화시키는 범죄행위인지 공감하게 하고 눈시울을 뜨겁게 하였다.(그 사람이 벌여준 아이 디로 몇몇 사람들은 위로와 지지의 편지를 보내 공감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 노출이 성폭력의 주범인가?

그렇다	아니다	어느정도 그렇다	기타	자료(본 상담소)
24	101	27	72	29

###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한가?

그렇다	아니다	어느정도 그렇다	기타	자료(본 상담소)
0	21	0	28	6

첫번째와 두번째의 성폭력의 잘못된 통념에 관한 주제에 관한 총 308건의 게시물중 “노출이 성폭력의 주범인가?”에 관한 의견이 253건,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을 불가능한가?”에 관한 의견이 55건이었다. 성폭력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잘못된 생각들 많이 가지고 있을 것

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아래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은 단 한 건도 없어서 통신인들의 높은 성폭력 인식 수준을 알 수 있었다. 기타로 분류된 의견들이 많은 것은 특정 토론인의 의견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나 성폭력에 관한 또 다른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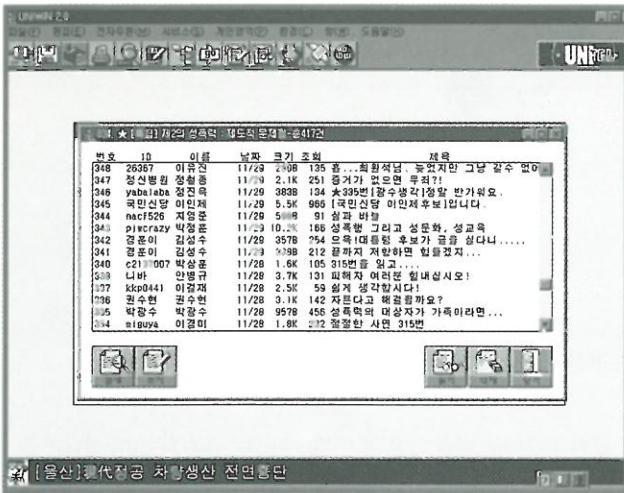
둘째주 주제인 [제2의 성폭력 : 제도적 문제점]에서는 1주때보다 게시물이 적었는데 이는 주제자체가 어느정도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이용자들이 쉽게 쓰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높은 조회율을 볼 때 이용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본 상담소가 상담사례에서 나타난 경찰·검찰·재판부 등의 태도를 요약하여 올린 자료는 많은 관심을 모았으며, 성폭력피해 전담경찰체 신설, 피해자 신원 보호,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의 보호 등 앞으로 바뀌어져야 할 방향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또한 각계의 전문가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대안들은 앞으로 피해자보호를 위한 제도마련에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박원순 변호사는 제도적 장치마련요구에 대해 항상 정부가 핑계대는 것이 예산문제라고 꼬집으며, 그렇다면 우리가 세금을 더 내서라도 피해자 인권보호에 앞장서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올렸다.





이번 사이버토론회는 우리사회에서 정보통신의 중요성이 급속도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민단체 최초로 PC통신상에서 개최한 행사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본 상담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많은 힘을 얻었다. 매년 성폭력 피해사건을 대할 때마다 우리들이 대항해야 하는 벽이 너무나 두껍고 그 벽을 허물려는 노력이 너무나 힘겹게 느껴질 때가 많았지만, 이 행사를 통해 많은 통신인들의 건강하고 적극적인 의견들을 보면서 우리사회에는 벽을 깰 힘이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아직도 성폭력피해자들이 끝까지 저항했는지, 혹시 남성의 성충동을 유발했는지 안했는지 등을 기어이 확인하려는 주변사람들, 그리고 수사·재판 관련자들의 시선이 여전히 많이 있지만, 희망을 찾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이버토론회는 매우 즐거운 행사였다. ☺

· 본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패널 명단(무순)

권영길·김대중·이민재·이희창 대선후보, 신낙균·이미경 국회의원, 박원순·오세훈·최은순 변호사, 강지원 검사, 유지나·정유성 교수, 이원숙 소장(본 상담소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 오숙희(방송인), 이현승 영화감독, 박광수(만화가, 조선일보 '광수생각' 연재중), 김학균PD(MBC경찰청 사람들), 김강자 경정(남부경찰서 방법과장), 여성단체연합, 전교조, 여자형사기동대, 송경아 작가, 각 지역의 성폭력상담소 총 32명(단체 포함)

## 차라리

· 게시일 97/11/24 16:54:04 · 크기 345B · 조회횟수 53

차라리 과다노출이 성폭력의 원인이라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여성들의 약간의 노력으로도 성폭력이 추방될 수 있다는 뜻일테니까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제 친구의 경우 지하철에서 치안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옆에 바로 서 있었는데 개치 않고 행동하더군요. 그 때 그 친구의 복장은 청바지에 엉덩이를 덮는 스웨터 차림이었습니다.

## 길들여진 편협된 시각이 문제 아닌가?

· 게시일 97/11/26 · 크기 660B · 조회횟수 7

“노출은 성폭력의 주범인가?” 라면 우리는 왜 여성들의 노출만으로 한 정시켜 생각하는가? 왜 문제제하고 논쟁하는가? 옷통을 자연스럽게 벗고 운동한다거나 여름에는 속옷차림의 짧은 옷을 입는 남자들의 옷차림 등등 일상생활에서의 자주 접할 수 있는 것들은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드물다. (중략)

## “끝까지”라니

· 게시일 97/11/27 · 크기 417B · 조회횟수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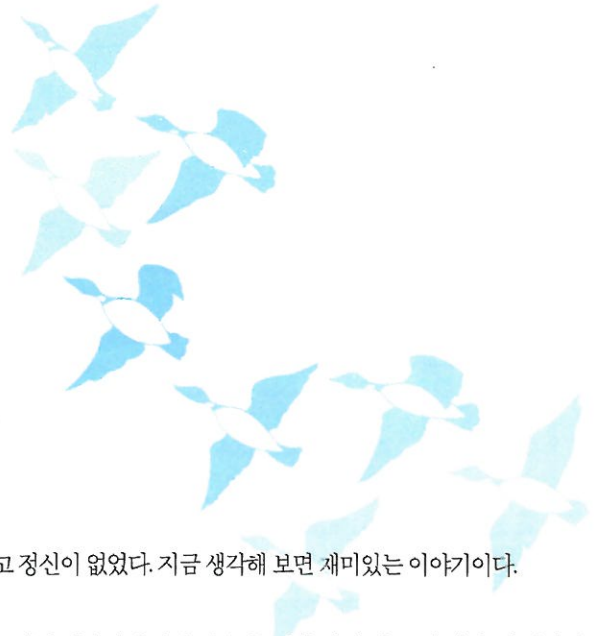
유아, 어린이(소년도 포함), 할머니들도 강간 피해자의 일부다. 힘없고 약한 이들에게 끝까지 저항하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성폭력은 힘의 우위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사회적 힘의 남용에서. 그런데 “끝까지”라니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이 이루어지는 지 아닌 지 나는 알고 싶지 않다. 언제나 힘없고 약한 사람들의 부당대우에 인권의 빛이 비추어질지 알고 싶다. 속마하는 말이다. “끝까지”라니...

## 좋은 재판부, 검찰, 경찰이 많아졌으면...

· 게시일 97/12/03 18:52:40 · 크기 1.1K · 조회횟수 10

제 주위의 경우를 빌어 얘기해보려 합니다.

제 친구 언니의 경우 강간으로 가해자를 고소했는데 좋은 경찰을 만나 마음이 좀 편해졌다고 말합니다. 가해자와 부딪히는 걸 가능한 줄이고 가해자가 심한 욕설을 하려고 할 때 중간에서 막아주었다고 합니다... (중략)... 이런 좋은 분들이 많아지면 성폭력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고 피해자들도 문제를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지도록 상담소에서도, 정부에서도 노력해주세요. 경찰들이 성폭력 사건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일정기간 교육을 받는거나 수사상의 주의점 같은 것들이 지침으로 마련되는 것도 하나의 예라고 생각합니다.



# 잊지 못할 열림터 생활

햇살 가명, 前 열림터 내담자

나는 지금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 보통 친구들처럼 학교도 다니고 공부도 한다. 하지만 나는 친구들이 가지지 않은 추억을 하나 가지고 있다. 그것은 우리 가정이 이만큼 자랄 수 있도록 해준 열림터에서의 생활이다.

중학교에 들어가던 해 나는 아버지에게 모질게 당하고 가족들과 함께 갈 곳 없이 거리를 방황하게 되었다. 솔직히 그때는 나도 초등학생이 아니라 중학생이라는 생각에 온통 새로운 생각이 한결같았다. 그만큼 그때의 현실은 충격적이었다.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그야말로 거지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되었다. 그런 우리 가족에게 작은 꿈을 심어 주었던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열림터, 그곳에서 일하시는 여러 선생님들 덕분에 우리는 쉴 수 있는 공간을 얻을 수 있었다.

열림터에는 우리 가족 뿐 아니라, 나와 같이 피해를 입은 언니들과 친구가 있었다. 앞으로 함께 지낼 생각을 하니 어떨까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의 좋은 모습만 보여주겠다고 결심도 했다. 그렇게 시작한 생활 얼마 동안은 그리 즐겁지가 않았다. 5살 먹은 동생이 장난을 그치지 않아, 언니들과 친구들에게 미움을 사고, 저절로 우리는 친해질 수가 없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좋은 감정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동생을 매일 꾸짖고 또 친구 선경(가명)이와 편지를 쓰면서 감정을 풀어 나가려고 애썼다. 그 후 우리는 모두 친해질 수 있었고, 가끔 근처 공원에 놀러도 가면서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냈다.

언제부터였는지 우리는 아주 친해지게 되었다. 토요일마다 하는 집단상담 때는 떠들썩한 분위기가 가라앉고 모두들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집단상담 시간은 내가 좋아하는 시간이었다. 모두들 일주일 동안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 수 있었고, 또 잘못된 부분은 새로 깨닫는 발판이 되었기 때문이다.

열림터에서는 토요일과 일요일만 빼고 수업을 받았다. 비디오 감상을 하는 날에는 내용 이해가 되지 않아 찢찢 매거나, 만들기 시간에는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어 쓰기도 했다. 평소에는 노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다가도 수업 시간이 되면 모두 한 걸음씩 물러선다. 반면에 김병숙 선생님께서 오시기로 한 날은 아침부터 분주해지곤 했다. 선생님께서는 무척이나 깔끔하시기 때문에 그날 아침은 청소하느라

고 정신이 없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이다.

내가 열림터에 한참 있을 후 민지(가명)와 주현(가명)이 언니가 들어왔다. 민지는 나이가 어려 동생과 잘 놀았고, 주현이 언니는 요리를 잘해 맛있는 반찬도 많이 만들어 주었다. 나는 두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갖은 애를 썼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함께 생활하다보니 장난도 치기 시작했다.

내가 열림터에 있으면서 가장 즐거웠을 때는 역시 추석 때였다. 그때는 여러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같이 게임도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다. 매일 비슷한 생활을 하다가 오락 프로그램을 하니 모두 적극적이고 즐거워했다. 처음 보는 선생님도 계셨는데 그리 낯설지는 않았다. 추석이 지나고 며칠 후, 우리 가족은 열림터를 떠나야 했다. 막상 떠날 생각을 하니 모든 게 아쉬웠다. 특히 친한 친구 선경이와 싸웠던 적, 또 밥도 해보고 청소와 빨래도 해본 것들 모두 아쉬웠다. 더 잘할 수도 있었다고 후회도 해보았다.

우리가 떠나던 날, 선경이는 울어 버렸다. 그걸 본 나도 울고 싶었지만 울 수가 없었다. 우리 식구는 배웅을 받으며 열림터를 나섰다. 그때, 내 기분은 꿈과 내 모든걸 열림터에 놓고 나오는 것 같았다. 나는 언젠가 꼭 다시 와보겠다고 결심했다.

지난 김병숙 선생님의 결혼식날 열림터에 갔다가 우리들의 우정을 알 수 있었다. 내가 맨 처음 열림터에 갔을 때와는 달리 만나자마자 이야기 먼저 나누었다. 우리가 만난 것이 우연은 아닐까? 전혀 모르던 우리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지낼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헤어질 때에는 섭섭하고 만나면 반가울 수 있게 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함을 느낀다.

아직도 열림터에 있는 언니들과 민지는 또 누군가를 만나 사이 좋게 지낼 것이다. 나는 열림터에서 두번째 가정을 이룬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모두들 너무 보고 싶다.

우리같은 사람들이 쉴 수 있도록 만든 좋은 곳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너무 좋고 또 한편으로는 편안하다. 열림터에서 매일 써야 했던 일지를 읽어 본 나의 마음은 그동안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놓은 것 같다. ☺



# 시드니 강간위기센터

정경자 본 상담소 前 총무

호주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에 따르면 호주에서는 1996년 1.5%의 여성들이 최근 12개월 이내에 강간을 당했으며 0.7%의 여성들이 성폭력의 위협을 경험했다고 한다. 또 경찰에 신고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80%가 여성이며, 이 중 30%가 14세이하의 어린이이다. 또한 15세에서 19세 사이의 피해자가 17%로 호주에서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성폭력 피해에 취약함을 보여준다.

호주에서 성폭력 문제에 대한 관심들은 1970년대 초기부터 시작되었다. 최초의 강간 위기센터인 시드니 강간 위기센터가 1974년 설립되었고, 정부 차원에서는 NSW 주의 경우 1978년부터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1981년 성폭력 관련 법의 개정으로 강간이란 용어는 성폭력(sexual assault)으로 대체되었으며 구강 및 항문성교와 결혼내 성폭력이 새롭게 성폭력으로 정의되었다. 1998년 현재 NSW 주에만 50여 군데의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성폭력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각 지역별 국공립 병원에서 운영되는 성폭력 센터(Sexual Assault Centre)이며 일부는 지역 건강 센터(Community Health Centre)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외에 시드니 강간 위기센터(Sydney Rape Crisis Centre)와 어린이와 근친강간 피해자를 위한 심리상담을 위주로 하는 딘프나 하우스(Dympna House) 등이 있다.

이 중에서 한국의 성폭력 상담 단체와 기능이 유사하며, 페미니스트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된 24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시드니 강간 위기센터에 대해 소개하려 한다. 이 센터는 1974년 3월 세계 여성의 날 행사로 열린 '폭력 사회에서의 여성'이라는 포럼에서 강간 피해여성들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그동안 경찰, 가족, 의사, 재판 과정에서 겪었던 부정적인 반응들을 토로하면서 비롯되었다.

이 자리에서 성폭력 피해여성들을 위한 지원 체계의 필요성을 절감한 페미니스트, 학생, 사회주의자 등 젊은 여성활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1974년 10월 여성해방의 집(Women's Liberation House)의 작은 방에서 성폭력 상담을 시작하게 되었다. 초기에는 순수 민간단체로서 정부의 경제적 지원 없이 10명의 자원 상담원들로 운영되었다. 그후 재정적 어려움으로 여성운동권 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재정지원을 요청하기에 이른다.

그 결과 자원 활동가들은 작은 돈이나마 유급으로 활동하게 되었

으며 24시간 위기상담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후 현재까지 NSW 주정부의 재정적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97년 자료에 따르면 심리학, 사회사업, 간호학, 교육학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진 11명의 유급상담원이 낮과 밤으로 나누어 활동하고 있으며, 2명의 사무직원이 있다.

이 단체의 주요 활동은 24시간 위기상담, 지속상담, 내담자 지원, 성폭력 관련 정보 제공 등이다. 이외에 1년에 한 번씩 10명의 내담자로 제한된 그룹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1993년 부터는 청각 장애인을 위한 전화타자기(telephone typewriter) 상담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센터 이용에 어려움이 많은 비영어권 여성들을 위한 상담 지원을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 1994년 자료에 따르면, 한 해 동안 2천 7백 79건의 지속 상담이 있었고, 9백 9건의 신규 상담과 1백 22건의 면접 상담이 이루어졌다.

이 중에서 1천 3백 62건이 강간 사건이었다. 그밖에 1976년부터 호신술 교실을 운영했으며, 1979년에는 전문직 남성들에 의한 성폭력 문제를 이슈화 하였고, 1980년에는 대학 학생회와 연계하여 대학 내 성희롱 실태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1985년에는 성폭력 책자를 발간하였다. 1989년에는 원주민 상담원을 고용하여 성폭력 피해 원주민을 위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대외적인 활동으로는 1985년부터 타 여성단체와 연계하여 '밤길 되찾기' 행사(해마다 10월 마지막 금요일 열리며, 1만 여명의 여성들과 어린이들이 성폭력 구호를 외치며 도시 중심가를 행진한다.)를 주관하고 있다. 이외에 성폭력 조장 음란물을 없애기 위한 백만명 서명 운동에도 연대하여 활동하고 있다.

주목할만한 점은 24년의 긴 세월이 흐르면서 이 단체가 여성운동 차원에서보다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페미니즘을 전면에 표방하기보다는 전문적인 지식과 상담기법으로 상담효과를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재원으로 인한 저임금, 상담업무의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상담원들의 이직율이 높아, 상담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과 비교하여 너무나 많은 성폭력 상담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내담자들이 장기간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현실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 몇 명의 혹은 몇 백의 혹은 수를 알 수 없는 여자들에 대한 보고서

문보미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재학

## 1

나는 하늘 위를 난다. 난다는 것은  
멋진 일이다. 종종 나는 미친 년이라 불린다. 아마도  
태양 아래 벗은 몸으로 노래를 말리는 것을 좋아해서인지  
(그러기 위해서는 정성스러운 노래 빨래가 필요하다. 빨래터에서 나  
는 여인들이 땅 위로 보낸 피 속에서 물고기들이 분홍빛으로 피어나는  
것을 보곤 했다)  
정확히 말하면 나는 하늘 위를 날지 않는다  
다만 하늘은 아주 쉽게 무너지고 그 무너진 잔해 위를 승리한 연어처  
럼 흘러 다니는 것이다  
그것은 모두 내가 미친 년이기에 가능하다

## 2

죽음이 하나 달려오면 그 뒤로 또 다른 죽음이  
하얀 혼 하나 쏟아지면 그 뒤로 하얀 혼 또 하나 흩어져  
아무 것도 변한 게 없어  
그대 머리 위로 칼들이 나부끼고 수천의 사다리가 세워졌으나  
아무 것도 변한 게 없어  
쓰레기 가득한 땅 위에서 흐둑흐둑 꽃 모가지 부러지고  
그대, 몇 번을 뒤적이다. 차라리  
고개를 땅으로 처박다. 허 밀 깎술히 스마는  
사랑스런 흙의 맛!  
갓 태어난 그대의 아기처럼 으앙 울음을 터트린다

## 3

..... 나는 너가 보고 싶었어,  
여신이 강간 당해 그 시신 땅에 뿌려져 있다는 전설을 들은 후부터,  
오랫동안 찾아왔지, 이제 여신의 시신은 네 어깨 아래서 발견되었으  
니. 축제를 시작하자.  
긴 시간 썩지 못했던 시신을 사랑 가득히 먹어 버리자, 팔랑이는 나비  
날개들, 우리  
안에서 부활할 그녀, 자, 축제를 시작.  
  
모든 꽃들은 짓밟혔다  
꽃들이 깨 자신의 빛깔을 알기도 전에 푸른 청신가리가 뿌려졌다  
언젠가 너는 나의 목을 조르리라  
그리고 떨구어 나오는 홍채, 유리채, 눈조리개, 맘막들을 모아  
새로운 꽃 한 송이를 잉태하리니

노래 상자가 열려지다

## 4-마지막

그 동안 그녀들을 응시하던 천 개의 감시 렌즈가 팍, 부서진다  
렌즈를 관음하던 사람들의 눈도 부서진다 가루가루 환한 어둠은 내장  
속에 번지고  
이제 아무도 그녀들을 시야 속에 감금할 수 없다  
그러니 그녀들에게 가기 위해선 눈을 버려야 하리  
뱀처럼 온몸으로 기어가 그녀들의 손을, 발을, 젖가슴을, 배를, 얼굴  
을, 부서진 눈을  
느껴야 하리  
탈주는 그 곳, 자주빛 어둠과 함께



## 본 상담소에서 발간한 새로운 지침서를 소개합니다



### 〈성폭력관련 법률지침서〉

성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 심리적 피해를 극복하는 방법들 중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 다루고 그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실어 놓은 책으로 법적으로 처벌되는 성폭력의 유형, 성폭력 피해에 대한 민사적·형사적 대처방법, 고소방법과 절차, 성폭력 관련 법안 등과 각각의 단계에서 피해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및 주로 갖게 되는 의문점 등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가격:2,000원



### 〈성폭력관련 의료지침서〉

성폭력 피해 후 시간을 다투어 대처해야 할 부분들과 이후 신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치료방법 등에 관한 내용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왜 의료진찰을 받아야만 하는지, 진찰과정은 어떠한지, 시간이 흐른 뒤에 나타나는 증상들은 무엇인지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피해당사자, 피해자 주변인,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료진, 교사, 부모, 상담원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가격:2,000원



### 〈당당하고 자유롭게 일하는 여성〉

영업직 여성들은 직장내 성폭력 피해와는 달리 거래처 직원이나 고객을 상대하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고, 또 개인적으로 대처하고 처리해야 하므로 더 많은 고충을 겪게 됩니다. 본 지침서에서는 비정규직, 영업직, 서비스직, 판매직 등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일하면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성폭력 피해 상황을 사례로 엮어 각각의 피해유형에 따른 예방책과 대응방안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격:2,000원

· 구입문의:이경미 책임연구원/576-7128

## PC통신상에서도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만날 수 있습니다

97년 6월부터 본 상담소에서는 유니텔과 마이넷에 IP '성폭력 없는 세상을 위하여'를 개설하여 올바른 성지식과 각종 상담사례, 성문제 관련기사 및 상담소의 소식등 다양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신상에서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나날이 거듭나는 상담소의 모습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통신 접속후 go ksvrc!

· 문의:정진욱 부장/576-7128

## 여러분들의 후원 없이는 성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은 국민의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협조 없이는 상처를 극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성을 모아주시면 상담소에서는 이를 소중히 받아 피해 여성들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하겠습니다.

후원회원이 되시면 본 상담소의 소식지 <나눔터>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상담소의 각종 행사에도 초대됩니다. 지금 전화하여 월단위, 혹은 연단위로 후원금을 약정하여 주시면, 상담소에서 지로용지를 발송하여 드립니다.

· 문의:박미숙 부장/576-7128

##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런 곳입니다

1991년 4월 성폭력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문을 열었습니다. 개소 이래 본 상담소는 지금까지 1만 6천여 회의 성폭력 피해자들과의 법적·의료적·심리적 상담을 통해 내담자들이 피해를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였으며, 성폭력의 원인 및 예방대책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인간중심적인 성문화를 정착시키고, 여성의 인권을 회복시켜 보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성폭력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으로, 인권에 대한 유린행위입니다. 성폭력은 결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담소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함께 풀어갈 수 있습니다.

· 일반상담, 열린터 : 529-4271~2, 위기상담 : 573-1888



본 상담소 심별은 여성을 나타내는 우가 3개 모인 것으로, 이는 여성들이 손을 잡고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 힘을 모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양쪽의 비스듬한 다리모양은 피해여성의 자립을 위해 여성들 스스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별의 색깔은 '여성' 과 '차매에' 를 상징하는 자주색입니다.

##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성폭력에방비디오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 건강한 일터, 자유로운 여성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직장 내 성희롱! 몇 가지 유형을 통해 성희롱이란 무엇인지 알기 쉽게 설명해 주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알려줍니다. 사회진출을 앞둔 학생, 예비 직장인, 남녀 직장인들에게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 내 몸은 내가 지켜요

어린이 성폭력 예방비디오. 아직 '성폭력'에 대한 개념이 없는 어린이들에게 인형극과 노래극을 통해 '내 몸은 소중한 것이며, 내가 아끼고 지키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어린이가 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어린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그리고 어린이를 둔 부모님의 성교육, 교재로 적합합니다.

· 구입문의 : 이윤상 부장 / 576-7128

##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외부 강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상담소에서는 성폭력 예방과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하여 외부 강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 강의 주제

성폭력 실태와 예방 / 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성교육 / 어린이 성폭력 / 직장 내 성희롱 / 학내 성폭력 예방 및 성문화 / 성교육 지도자 교육 / 자녀 성교육 지도 / 유형별 성폭력 상담방법

※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본 상담소에서는 강의와 더불어 상담소에서 제작·판매하고 있는 비디오를 함께 시청하고 토론하는 강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강의의뢰 문의 : 장윤경 사무국장 / 576-7128

● 이사 강학중 · 문해란 · 민병진 · 박금자 · 오세민 · 윤장순 · 이종길 · 조영환 · 최영애 ● 감사 회계사/배자하 세무사/차재능 ● 자문위원 상담 인건재활화/김종인 정신보건사회사업가/오현숙 목회상담가/이재훈 임상심리상담가/이철원 · 정연옥 심리학/이윤로 · 이상호 · 이해성 · 장연길 · 채규만 사회학/장영복 사회복지학/한인영 · 현혜순 법률감사/김옥철 법학/한인섭 변호사/강기원 · 고순례 · 권성희 · 김삼화 · 박성호 · 박찬운 · 신기남 · 이명숙 · 이백수 · 이상경 · 이유정 · 이종걸 · 이항아 · 임종인 · 장재호 · 장철우 · 정갑생 · 정성광 · 정연순 · 조영환 · 최은순 경찰/김강자 의료 가정의학/김종구 법의학/강신봉 · 권일훈 · 문국진 · 서중석 · 이경룡 · 이윤성 · 최영식 산부인과/김주필 · 김현식 · 김홍배 · 남소자 · 문영규 · 민용기 · 박경자 · 박금자 · 박양일 · 박종민 · 윤경 · 이길여 · 이복주 · 임용택 · 정경원 성형외과/정영덕 소아정신과/소은희 · 최보문 신경정신과/김광일 · 김동순 · 김병후 · 김정일 · 남정현 · 양장순 · 이나미 · 이수경 · 최진숙 외과/오세민 임상병리과/강정옥 · 문해란 PC상담가 통신/김혁준 여론조사/이상경 홍보 출판 신문방송학/김용숙 · 최선열 언론인/전여옥 여성학/박해란 · 오숙희 연극/김지숙 · 손숙 출판/강학중 · 이인자 PD/고화천 조소/홍성도 카피라이터/홍성에 재정의사/민병진 회계사/배자하 임종은 세무사/차재능 대한적십자사 자문위원/윤장순 교육 교사/김성애 · 이순열 교육학/김인수 · 정유성 사회복지학/신필균 청소년교육/이규미 문화인류학/정병호 ●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 소장 이원숙 사회학/김준호 · 심영희 · 조형 여성학/김은실 · 변혜정 · 이재경 · 장필화 · 조주현 · 허라금 인류학/정병호 철학/이상화 · 정대현 심리상담가 권진숙 아동복지학/장화정 통계학/이용재 영문학/강경화 청소년연구원/김옥순 법학/김선옥 · 신용자 사회심리학/김혜원 사회학/박진숙 영화평론가/변재란 ● 대표이사 박금자 ● 소장 최영애